

동해안 대게 불법 포획 잇따라 적발

속초해경 대진선적 D호 등 3건 입건 ... 압수한 대게 해상에 방류

이달 1일부터 대게 불법 포획 금지기간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게 불법포획 사범이 끊이지 않고 있다.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9시경 대진선적 D호(3.5톤, 유자망) 선장 한모씨(55세)가 대진 앞바다에서 암컷대게 160여 마리를 포획한 뒤 판매하려 한 혐의로 입건됐다.

또한 13일 오전 7시경 강릉 주문진 앞바다에서 암컷대게 350여 마리를 포획한 주문진선적 D호(2.99톤, 유자망) 선장 김모씨(51세)도 판매하려다 순찰중 이던 해경에 적발됐다.

같은 날 오전 11시30분경 속초선적 O호(9.17톤, 통발어선) 선장 강모씨(53세)도 암컷대게 1,242마리를 불법 포획한 뒤 선



사진 왼쪽은 불법포획한 뒤 선박내 어창에 보관하다 해경에 적발된 암컷 대게. 오른쪽은 속초해경 직원들이 불법 포획한 대게를 해상에 방류하는 모습

박 내 어창에 보관하던 중 해경 단속에 적발됐다.

속초해경은 이들이 포획한 대게를 압수해 바다에 방류했다.

정부는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지난해 4월 23일 수산자원보호령을 수산자원관리법으로 대체, 암컷 대게 및 체장미달(9cm) 수

컷 대게 포획 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또 불법 포획한 대게 암컷 및 체장미달의 대게를 소지·유통·

가공·보관 또는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최광호 기자



지난 16일 오전 11시 전물고원유격대원 제16차 위령제가 열렸다.

6.25 때 산화한 청년유격대원 넋 기려

전물고원유격대원 제16차 위령제 열려

함경남도 고원군민회가 주관한 전물고원유격대원 제16차 위령제가 지난 16일 오전 11시 함경남도 고원군민회 회원과 지역주민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이날 위령제는 6.25 전쟁 당시 함경남도 영흥만 일대에서 유격전을 벌이다 산화한 고원청년

유격대 출신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넋과 명복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령제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개회사, 추도사, 추모사 및 헌화, 분양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고원군민회 관계자는 "한국전쟁 당시 적과 맞서 유격전을 벌이

다 산화한 유격대원들을 기리기 위해 이 같은 추모행사를 매년마다 개최하고 있다"며 "조국수호를 위한 고원청년유격대의 죽음이 잊혀지지 않도록 그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는 일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승근 기자

4만명의 CEO 삼성생명 컨설턴트

삼성생명 CEO는 1명이 아닙니다
삼성생명에는 금융전문 컨설턴트로 활동하는 4만명의 CEO가 있습니다
당신도 4만 삼성생명 CEO의 일원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 모집 요강**
- 지원자격 : 만 20세 이상의 남녀
 - 지 역 : 고성군
 - 선발절차 : 직무설명회 ▷면접▷교육▷등록

삼성고성보험대리점
☎682-4480

동부·삼성·현대
손해보험 판매

입사상담

- ◇김양희 010-3382-4011
- ◇김지윤 010-4311-4985
- ◇문순선 010-4769-2868
- ◇원정숙 010-9243-2575
- ◇유수현 010-7169-6594
- ◇유은미 011-376-1752
- ◇이순성 010-4654-5659
- ◇이춘옥 010-8798-4330
- ◇정웅실 010-7681-4309
- ◇정춘자 011-747-6123
- ◇허금녀 016-341-3762